

**[포 AE-03] WouldYouLike[우주라이크]:
Astronomy, Space Science popularization
activity of astronomy major students
(WouldYouLike[우주라이크]: 천문학 전공
학생들의 천문우주과학 대중화 활동)**

Yeseul Jang (장예슬)¹, Sehyuck Seo (서세혁)¹, Sunho Jin (진선호)¹, MinYoung Kim (김민영)^{1,2}, Hyunji Kim (김현지)^{1,3}, Juhun Lee (이주훈)^{1,4}, Park Seunghyeon(박승현)^{1,4}, Woo rak choi (최우락)^{1,4}, Hyunsik Kim (김현식)^{1,5} Yong-Jae Moon(문용재)²
¹WouldYouLike (우주라이크), ²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³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⁴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⁵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WouldYouLike[우주라이크]는 2009년 천문학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천문우주과학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12년 무료 배포용 천문학 잡지 우주라이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1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이 잡지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 캠퍼스와 천문대 및 과학관의 협조를 통해 배포 중이다.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과 더불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와 홈페이지를 비롯해 현대인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천문학 콘텐츠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우주라이크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 수는 약 35,000명이며, 이는 한국천문연구원 페이스북 페이지의 약 6,000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는 우주라이크 본연의 목적인 천문학 대중화에 우주라이크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주라이크는 상기에 기술한 활동들과 함께 NASA에서 운영하는 APOD (Astronomy Picture of the Day)의 한글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포스터는 국내에서 천문우주과학 대중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연계해서 우주라이크의 활동 내역과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 천문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추후 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포 AE-04] Analysis for the revisited rate
survey of GNSM's Astronomy and Space
Facility**

Daeyoung Park, Jaeil Cho, Myounghee Han, Incheol Jang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국립과천과학관은 상설전시관 외에 천체관측소, 천체투영관, 스페이스월드 등의 천문우주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활용한 천문대중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관람객의 요구수준 증대 및 계층의 다변화에 따라 더 이상 과학관 간의 경쟁이 아닌 문화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등 여러 유형의 놀

이. 문화 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수는 정체하거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과학관 관람객층을 다변화하고 이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시설의 비 상설 프로그램인 “공개관측회”와 “저자특강”에 참석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율 조사를 하였고 이를 이용해 관람객의 프로그램 참석 빈도, 특성, 고객충성도 등을 분석하였다. 충분한 표본 확보와 자료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소수의 적극적인 관람객만 참여하는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에 등록된 모든 참석자의 목록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조사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인원은 6,700명이었으며 2회 이상 방문을 한 관람객의 재방문율은 38.8%를 나타냈다. 총 4,755명이 참석했던 “공개관측회”만을 대상으로 한 재방문율은 29.8%, 총 1,925명이 참석했던 “저자특강”만을 대상으로 한 재방문율 41.7%의 결과를 얻었다. 또한 두 프로그램을 모두 참석한 관람객은 전체 19.6%의 결과를 보였고 재방문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차 프로그램 참석자의 비율은 50.4%를 나타냈다.

[포 AE-05] History of Planetarium in Korea

Soonchang Park
Metaspace

Zeiss사에 의해 고안되어 제작된 최초의 근대식 천체투영기(Planetarium)는 1923년 독일박물관에 설치되었다.

세계 최초의 천체투영관은 큰 이목을 끌었고, 이 소식은 전세계로 전해져 유럽의 퍼지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미국의 갑부들이 자기 도시에 천체투영관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제일동포 사업가 이현수에게 일본 GOTO사의 천체투영기를 기증받아 1967년 4월 29일 광화문 전화국 옥상에 최초의 천체투영관이 개관하였다.

이 투영기는 1970년 남산어린이회관으로 이전되었다가, 1975년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으로 옮긴 후 2005년 퇴역하였다.

2017년은 천체투영관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해로,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88곳의 천체투영관이 운영 중이며 연 200만명이 방문하는 중요한 천문교육시설이 되었다.

**[포 AE-06] Astronomy Program Support for
Cambodia Secondary School Teachers**

Yong-Cheol Shin¹, Sun-Gill Kwon¹, Taewoo Kim¹,
and Astronomy Program Support
Team(천문교육프로그램 지원단)²
¹National Youth Space Center , ²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캄보디아의 Xavier Jesuit School과 연계하여 지역 중등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천문